

예수님의 70인 전도대원입니까?(눅10:1-7)

복음과 전도는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증인의 사명을 맡기셨다. 또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셨다. 예수님은 공생애 기간 동안에 많은 사람에게 전도실습을 시키시고, 그들에게 보고를 받기도 하셨다. 눅9:1을 보면, 먼저 제자들을 보내시고, 눅10:1으로 가면, 이제는 평신도들을 보내신다. 그들이 바로 '70인 전도대원들'이다. (1절) “그 후에 주께서 따로 칠십 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예수님의 중요한 사역 가운데 하나가,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다시 세상으로 보내신다는 것이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모두는 '70인 전도대원' 가운데 한 사람이라는 인식을 갖고 살아야 하겠다. 과연 예수님께서 이들을 보내시면서 당부하신 말씀은 무엇일까?

1. 전도자는 먼저 기도로 무장해야 합니다.

(2절)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전도하기 전에 우리는 기도로 준비해야 한다. 예수님은 영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기도할 것을 당부하신다. 죽은 영혼을 구원하는 권세는 하나님 밖에 없다. 우리는 사탄의 손아귀에서 믿지 않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사탄을 제어할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야 전도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 안에 영혼을 사랑하고, 구령열정에 사로잡히고, 불신자를 보면 견딜 수 없어하는 전도자들이 많이 나오도록 기도해야 하자. 현대교회 안에는 교인은 많되 전도자가 적다. 이번 기회에 나 자신부터 전도에 헌신하는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자.

2. 전도자는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3절) “갈피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전도자는 닥쳐올 어려움을 각오해야 한다. 이리는 물러설 줄 모르는 사납고 악랄한 짐승이다. 이에 비하면 어린 양은 한 없이 연약해서 목자를 의존해야 살 수 있다. 목자는 양의 생명을 책임지고, 보호하고 공급하고 인도하는 일을 한다. 양이 전적으로 목자를 믿는 것처럼, 전도자는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 4절에서 전대나 배낭을 지니지 말라는 것은,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고 공급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라는 것이다. 여분의 신발을 지참하지 말라는 것도, 주님의 인도와 보호를 확신하고 나가라는 것이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은 다음과 같이 생활에서도 본이 되는 삶을 산다. ① (4절下)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 전도자는 세상일로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 ② (5절) “...이 집이 평안할찌어다 하라” -> 전도자는 언제나 상대방에게 은혜가 되는 말을 해야 한다. ③ (7절)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 전도자는 성품이 소탈해서 무슨 음식이든지 잘 먹고, 누구와도 잘 어울릴 수 있어야 한다. 전도자가 본이 되지 않으면, 전도의 길을 막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

3. 전도자는 결과에 연연하지 말아야 한다.

(10-11절)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복음을 전할 때 거부하는 사람들을 만나더라도 낙심하거나 저주하지 말아야 한다. 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 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버리는 것은 이 일에 대하는 책임이 없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전도자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전도해야 한다. 왜? 전도는 분량을 채우는 일이기 때문이다. 나는 심고 물을 주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신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전도자로 세우시고, 파송하시기를 원하신다. 당신은 예수님의 70인 전도대원인가?

예수님의 70인 전도대원입니까?(눅10:1-7)

1. 마음 열기 - 나를 누구보다도 가장 잘 이해해 주는 사람은 누군가요?
2. 경배와 찬양 - 찬송가: 563장(예수 사랑하심을)



3. 말씀 나누기 - 먼저 성경본문과 설교요약을 읽으세요.
 - (1) 성경본문과 주일설교를 듣고, 특별하게 다가온 구절이나 은혜 받은 교훈이 있으면 이야기해 보세요.
 - (2) 전도하는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은?(무관심, 본이 되지 않음, 조금함, 그 외...)
 - (3) '이웃초청잔치'에 태신자를 작성하셨나요? 꼭 전도하고 싶은 이웃은 누구입니까? 이번 이웃초청잔치에 임하는 여러분의 다짐과 기대를 나누어보세요.

4. 사역나누기

- (1) 5월 27일(주일) 이웃초청잔치 '해피데이'를 위해 목장에서 실천해야 것들은 무엇인지 함께 의논하고 전략을 세우세요.
- (2) 오늘 특별히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그를 위해 기도하고, 축복해 주세요.
- (3) 서로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합시다.
- (4) 마칠 때, 다음과 같이 말하며 인사합시다.

“형제님(자매님)을 보니, 예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